

140개 로컬크리에이터 과제 면면 살펴보니...

10개 중 4개 '로컬푸드'... 지역 새로운 가치 창출 중점

해산물과 해녀 콘텐츠를 접목한 '취해녀의 부엌', 폐건물을 활용한 카페 '아이엠군산', 섬마을 리조트를 지향하는 '남쪽바다여행제작소'...

지역의 향기를 물씬 풍기며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로컬크리에이터'들이 대거 탄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선정한 로컬 크리에이터 과제 140개의 면면을 살펴 보면 지역의 자연적 특성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거나 발굴해 지역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로컬크리에이터 모집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무려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창작자, 창작기업들이 몰렸다.

로컬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와 먹거리, 즉 '로컬푸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140개 과제 중 41%가 여기에 포함됐다.

'취세이원프로퍼티'의 경우 전 세계에서 유일한 패션봉제산업 집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을 중심으로 지역 패션봉제제작자와 신진디자이너들이 창신아지트라는 협업공간과 쇼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재의 산실인 대전의 경우 엔 카이스트(KAIST) 멘토 및 대학원 구특구 등 대전지역의 과학 인프라를 활용한 이공계 진로 체험 프로젝트(예비창업자)와 대전내 과학기술분야 커뮤니티, 콘텐츠, 미디어 서비스 등을 하는 '사이콘'이 선정되기도 했다.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단업체들의 비효율적인 거래구조를 혁신하



중기부 '로컬크리에이터' 선정 제주·강원·순천 등 지역 다양 전국 곳곳 숨은 자연·문화 발굴 창작자 몰려... 경쟁률 22대 1 주민, 지역경제전문가 등 평가

바우처 최대 3000만원 지원 마케팅, 공간기획 등에 활용

고, 원단-공장-디자이너를 연결하는 대구 지역의 패션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향하는 'cmnmstudio'도 선정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하면 뭐니뭐니해도 '음식'이다. '해녀의 부엌'은 제주에 있는 주식회사다. 해녀의 공간, 콘텐츠, 해산물을 융복합한 해녀의 부엌은 해녀의 전통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제주 해산물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었다.

제주에선 과수원을 운영하는 로컬과 마와 도시민을 연결하는 과수원 공유서

비스를 제공, 농가의 수익을 높이고 체험을 지원하는 '당신의 과수원', 제주맥주 양조장 투어와 맥주 체험 공간을 운영하는 '제주맥주'가 로컬크리에이터에 선정됐다.

고래가 좋아하는 울산미역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미역건조체험과 생태교육을 제공하는 '선F&D',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고흥의 향토 특산물인 나물을 이용해 저염식 나물 피클 장아찌를 만드는 '농업회사법인 담무'도 뽑혔다.

부산 사투리를 이용한 화장품 '씨스라, 발라라'와 부산의 숨은 명소를 활용한 여행 및 안내지도를 제작하는 '코스마일코퍼레이션', 전남 순천만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갈대를 이용해 캠핑족들이 쓰는 착화제를 만들어 파는 '미라클뮤지엄' 등 지역기반제조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이외에도 ▲2030세대에게 강원도의 라이프스타일을 전달하고 지역성을 느낄 수 있는 굿즈를 만드는 '주식회사서



(왼쪽부터) 제주 해산물·해녀 콘텐츠 접목 '해녀의 부엌' 경북 의성군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젠들파머스' 대전 과학기술 콘텐츠·미디어 서비스 '사이콘'

웨이브컴퍼니' ▲파주 화훼농가의 꽃차를 상품화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다라그레이스' ▲남해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담은 맛있게 읽고 재밌게 먹는 팜프라 매거진 '코부기' ▲경북 예천지역 전통발효 명인의 종초배양법을 융복합한 콤포차 '디어브루' ▲지역을 연결하는 인문 프로그램 독립출판서점을 운영하며 독립출판물을 제작하는 '리브앤프린' ▲서울의 곳곳을 안내하는 지역주민가이드를 따라 서울지역을 여행하는 '하스' 등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 지원을 받게 됐다.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면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바우처가 지원된다. 또 민간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2년내 투자유치를 받은 투자연계형의 경우 창업 7년 이내 대상자에 한해 5000만원 한도로 투자금의 2.5배를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 지원금은 공간기획 및 디자인, 리모델링, 브랜드 마케팅, 시장조사, 서

비스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전문가인 연세대 박민아 교수는 "이번 로컬크리에이터 선정을 통해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찬란한 문화를 찾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 내는 젊은 창업가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17개 시·도에서 진행된 이번 선정평가에는 지역경제전문가, 방송PD, 투자자, 선배 기업인이 참여했으며, 지역별 주민평가단 의견(20%)도 반영됐다.

중기부는 관계자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로컬크리에이터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기회로 국내 관광 증진과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원규모 확대뿐 아니라 벤처투자 확대, AI·데이터 멘토링, 온라인 플랫폼 연계 등 내실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5년 후 여의도~인천공항 드론택시 타고 20분 만에 간다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 실증작업, 기체개발, 법 정비 등 착수 상용화 초기 운임 11만원 수준 전망 'UAM 팀 코리아' 이달 내 발족키로

현재 5호선 여의도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정도 소요된다. 5년 뒤엔 드론택시를 타고 20분만에 갈 수 있을까.

정부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따르면 이게 가능하다. 로드맵에는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과제와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로드맵에 따라 한국형 운항기준을 세우기 위한 실증작업에도 나서는 한편 기체 개발, 관련 법·제도 정비도 착수했다.

이번 계획은 UAM(Urban Air Mobility)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2025년 상용서비스 도입이 목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비행 기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첫 상용화 이후 약 10년간은 기체에 조종사가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시한 자율비행 목표 시기는 앞으로 15년 뒤인 2035년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UAM과 관련한 기술 개발은 선진국보다 시작이 늦었지만,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로드맵 수립은 한국이 가장 빠르다"며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면 선진국을 앞서나갈 수 있

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에 착수해 2024년까지 통신환경, 기상 조건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한다. 상용화 전까지 실증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충분히 안정성을 검증하고 UAM이 도심내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용화 전인 2024년에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량리역, 코엑스 등을 잇는 실증노선을 지정해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승 시제기(試製機)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중·장거리용(100~400km) 기체와 2~8인승 기체 개발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대규모 자본이 드는 UAM용 터미널(Vertiport)은 민간자본 조달을 통해 구축하되,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맞물리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보안 검색과 운송사업제도와 관련한 내용도 들어있다. 탑승객 보안 검색은 기존 항공보안 검색과 달리 이용객 신원 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 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하고, 기존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나 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 단계에는 정부 주도로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또 항공분야 국제 기준을 주도하는 미국 연방항공국(FAA),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도시 권역 30~50km 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는 UAM은 승용차로 1시간 걸

리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 교통서비스다. 5호선 여의도역에서 인천공항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운임은 상용화 초기 40km(인천공항~여의도) 기준 11만원 정도로 모범택시보다 비싼 수준이 되겠지만, 추후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M이 상용화되면 수도권 기준 출퇴근 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70%가량 줄어들고, 2040년까지 UAM 관련 세계 시장 규모는 73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로드맵 세부 과제 발굴·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 'UAM 팀 코리아(UAM Team Korea)'를 이달 안으로 발족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영화에서만 보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목전에 왔다"며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